

일시

2016. 7. 6 (수)
9:00~10:30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701호

Date

July 6, Wed, 2016,
09:00~10:30

Venue

701 Myungshin-Build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문화정책국제컨퍼런스(ICCP) - 2016 서울예술교육포럼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y Research(ICCP)
- Seoul Arts in Education Forum 2016

창조의 시대, 예술을 통한 시민 참여

: 서울시민예술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Civic Engagement with the Arts in the Creative Age

: The Case of Seoul



서울문화재단



iccp2016

창조의 시대, 예술을 통한 시민 참여

: 서울시민예술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Civic Engagement with the Arts in the Creative Age

: The Case of Seoul

일시 Date

-

2016.07.06(수) AM 09:00 ~ 10:30

장소 Venue

-

숙명여대 명신관 701
701 Myung-Shin Bldg,
Sookmyung Womens Univ

목차

소개	4
서울문화재단	5
서울창의예술교육	5
서울예술교육포럼	5
발제	9
I. 창조 시대의 예술과 사회	10
II. 예술 ; 자기존중의 회복을 위한 시민의 권리	17
III. 평생교육과 치유로서의 예술	28
: 서울시민예술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44
1. 예술 평생교육의 문화적 영향	45
2. 서울의 예술교육 지원 시스템을 위한 방향 및 과제	49

CONTENTS

INTRODUCTION	4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5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5
Seoul Arts in Education Forum	5
PRESENTATION	9
I. Art and Society in Creative Age	14
II. Civil Engagement with the Arts for the Recovery of Self-Respect	23
III. Art as Lifelong Learning and Healing Action	36
- The Case of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DISCUSSIONS	44
1. Perspective on Cultural Effects of Art Education	47
2. The Direction and Task for Supporting Arts Education of Seoul City	51

소개 INTRODUCTION

서울문화재단
서울창의예술교육
서울예술교육포럼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Seoul Arts in Education Forum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서울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만듭니다. 예술 창작지원부터 생활 속 문화향수를 위한 축제와 문화사업, 그리고 예술을 매개로 한 창의적인 예술교육사업까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향기를 서울 곳곳에 퍼트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서울창의예술교육

서울창의예술교육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통합브랜드입니다. 미적체험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체험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름을 통한 소통을 실천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배우며, 성장하는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개인이 스스로의 삶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서울창의예술교육은 예술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지원합니다.

서울예술교육포럼

서울예술교육포럼은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흐름을 주도하는 열린 토론의 장(場)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비전과 리스크,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정책의 변화가 현장의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예술교육포럼은 문화정책국제컨퍼런스(ICCP)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의 본질적 역할을 함께 인식해 보고자 합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예술교육의 방법론, 교사론, 그리고 철학적 지향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한편, ‘서울시민예술대학’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 평생교육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FAC)

SFAC is dedicated to make Seoul a happier and better place through arts and culture. We are committed to encouraging everyone in Seoul to freely access, and participate and engage in, the arts.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SEA)

SEA encompasses all of SFAC’s arts in education and aesthetic engagement programs. SEA is based on the belief that aesthetic experiences and inspire fundamental changes in people’s live through increased sensibility, empathy and critical thinking. SEA pursues an experience-oriented and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to encourage a deeper appreciation of the arts and the aesthetic in everyday life, and to open people up to new possibilities in learning by sharing artistic processes of thought and practice. Through the varied programs of SEA, SFAC plays a leading role in the innovation of arts learning and engagement both within Seoul and across Korea.

Seoul Arts in Education Forum

Seoul Arts in Education Forum is the leading platform for in-depth discussion that pioneers the city’s arts and cultural education. The Forum was designed to bring policy changes into passion in the day-to-day teaching field, through extensive discussion and representation with regard to visions, risks, and unlimited possibilities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The 2016 Seoul Arts in Education Forum is held to examine the intrinsic role of arts engagement in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y Research(ICCP). It will explore methodology of arts education, teaching theories, and philosophical goals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hile continuing constructive discussion over lifelong education of arts and culture by looking into the case of “Seoul Lifelong School of Arts.”

2016 서울예술교육포럼
창조의 시대, 예술을 통한 시민 참여
:서울시민예술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2016 Seoul Arts in Education Forum
Civic Engagement with the Arts in the Creative Age
: The Case of Seoul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예술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창의와 혁신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의 예술은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매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경제,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정책적 솔루션으로서 예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의 예술의 역할이 수단적인 부분으로 국한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예술이 사람들의 창의력을 향상하여 혁신적 제품개발에 기여하거나 혹은 대안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증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인류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예술의 본래 가치 즉, 참된 자아의 발견, 자아의 정화, 느낌과 사고의

표현 등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진지한 미적 경험의 축적은 시민들로 하여 공감능력을 갖추게 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기반성과 비판적 사고를 키워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사회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의 예술의 역할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시민의 마땅한 권리로서의 예술 참여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미적 체험을 한 이후 실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서울시민예술대학'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The role of the arts has been changing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In modern society, emphasizes the creativity and innovation, arts have emerged as useful methods to boost the creativity of individuals and groups. Accordingly, lots of policy reports on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economics and urban planning include artistic solution to take advantage of it. However, is it necessary to prove the role of arts is only to make students creativity, produce innovative products or provide alternative jobs? Can it be possible to make a difference of people and society by the inherent value of art, to find true self, purify oneself and express how he/she feels and thinks, which existed in the history of human be-

ing? The abundance of earnest experiences of the arts allows people to develop empathy and worthy attitude to respect diversity. Furthermore, arts can lead a qualitative growth of society by facilitating citizens to think critically and to behave in a democratic manner and to have a reflective power inside. This session will talk about the value and the role of arts in contemporary Seoul not only in a social and educational, but also in a personal context and discuss the arts as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 In addition, the session will shows that how people actually get meaningful changes in life through aesthetic experiences, with the case of 'Seoul Lifelong School of Arts'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기조발제	한준, 연세대학교 창조 시대의 예술과 사회
발제 1	곽덕주, 서울대학교 예술 ; 자기존중의 회복을 위한 시민의 권리
발제 2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평생교육과 치유로서의 예술 : 서울시민예술대학 사례
토론 1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 평생교육의 문화적 영향
토론 2	백선혜, 서울연구원 서울의 예술교육지원 시스템을 위한 방향 및 과제

Keynote Presentation	Joon Ha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Art and Society in Creative Age"
Presentation 1	Dukjoo Kwa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ivil Engagement with the Arts for the Recovery of Self-Respect"
Presentation 2	Mihye Lim, General Director,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rt as lifelong learning and healing action- The case of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Discussion 1	Hyein Kim, Research Fellow,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Perspective on Cultural Effects of Art Education"
Discussion 2	Seonhae Baik, Director/Senior Research Fellow, The Seoul Institute "The direction and task for supporting arts education of Seoul City"

사회자 Moderator

백 령

뉴욕대학교 미술교육학 석·박사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주 연구분야

문화예술교육, 박물관/미술관 교육, 예술경영

Young Baik

Ph.D. in Art Education, NYU.
Professor of Kyunghee University

Interests

Culture and Arts Education,
Museum Education, Arts Management

발제 PRESENTATION

- I. 창조 시대의 예술과 사회
 - II. 예술 ; 자기존중의 회복을 위한 시민의 권리
 - III. 평생교육과 치유로서의 예술
: 서울시민예술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
- I. Art and Society in the Creative Age
 - II. Civil Engagement with the Arts for the Recovery of Self-Respect
 - III. Art as Lifelong Learning and Healing Action
- The Case of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I . 창조 시대의 예술과 사회 Art and Society in Creative Age

한 준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 연구분야

조직사회학, 예술사회학

Joon Han

Ph.D. in Sociology, Stanford University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Interests

Organization Sociology
Sociology of Art

I . 창조 시대의 예술과 사회

한준

예술은 인류의 역사 대부분을 인간과 함께했다. 노동으로 인한 생산량이 충분해짐에 따라 어느 정도 노동에서 해방된 인류는 예술 작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예술은 많은 기능을 담당했으나 초기 예술의 주요 역할은 초월적 존재 및 권력자들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데 있었다. 박물관이나 유적지의 수많은 예술 작품이 신을 경배하거나 정치적 지도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술작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유는 예술 작품이 권력이나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본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의 기원은 원시 동굴의 고대벽화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예술가’라는 정체성이 사회적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수 세기가 지난 뒤였다. 인류 역사의 초기, 신과 왕들을 경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은 예술가가 아니라 장인에 의해 생산되었다. 재력가 혹은 권력자들은 장인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작품을 만들도록 하였다. 따라서 장인들에게는 어떠한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자율권이 거의 없었다. 예술에 대한 취향을 독점한 것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예술작품 후원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어떠한 종류의 예술작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생산자와 후원자 사이의 이러한 비대칭적 구조는 예술작품 생산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함과 동시에 이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예술작품 생산자는 길드 체제의 통제 아래 있었으며 예술적 혹은 사회적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술작품 생산자들은 자율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술적 자유와 자율권을 먼저 누린 계층은 문학가들이었다. 이후 화가와 조각가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마침내 작곡가와 음악가들이 자유로운 예술가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의적 작품을 통해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되면서 이들의 작품을 취급하는 시장 또한 확대되었으며 예술작품은 의례용 혹은 상징적 가치보다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는 아카데미로 조직된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예술가 공동체 내부의 불평등과 위계 구조는 예술가와 다른 사회적 집단 사이의 불평등보다 심화되었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명예, 지위, 사회적 존중을 얻었지만 특권과 명망을 누리고 독점한 것은 소규모의 성공한 예술가들뿐이었다. 아카데미 예술은 미적 가치에 제도적 규칙을 강조하고 요구하였으며 자유로운 실험과 개인의 상상력을 제한하였다. 예술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제거되었지만, 전통에 기반을 둔 집단 내부의 통제는 예술가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한하기에 이른 것이다.

모더니즘 혁명이 도래하자 예술가들은 아카데미 예술 및 고전주의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들은 전통보다는 자신의 내부에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전통적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고전주의의 기준을 따르는 대신 새롭고 창의적인 실험이 장려되었다. 모더니즘 운동이 일어난 이후 창의적인 예술적 천재라는 개념이 크게 주목받고 인정받았으며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되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예술가들의 모토가 되었으며 점차 많은 예술가 지망생들이 기성세대의 가치에서 벗어나 보헤미안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비록 모더니즘 혁명은 예술가가 예술적 가치의 무사 심적(disinterested) 추구를 이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모더니스트 예술가들이 경제적 궁핍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를 ‘뒤집힌 경제 세계(economic world reversed)’라는 개념으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그들의 ‘문화적 자본’을 기반으

로 자신의 예술작품에 대해 인정받았지만 '경제적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빈곤을 겪었다는 것이다.

상업예술이 등장한 때도 바로 모더니즘 사조가 일어난 시기였다. 대도시가 생겨나고 중산층이 형성됨에 따라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아닌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이 누릴 수 있는 상업예술이 20세기 초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상업예술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발터 벤야민의 통찰대로 예술작품이 기계적으로 생산 및 복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대중은 상업예술에 열광했지만, 엘리트 계층은 이를 비판하고 경시했다. 상업예술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 태도에는 이들이 누리던 기득권 및 문화 헤게모니를 방어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따라서 후원자로서 상업예술을 지원한 것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 일반대중이었다.

20세기 초, 대부분 서구사회에서는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이 구분되고 문화적 위계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시아권 사회의 엘리트층 역시 이러한 고급/대중문화의 구분 양상을 받아들이면서 20세기 중반 문화적 위계질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양상이 되었다. 상업 무역 및 매스컴의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자 문화적 위계질서의 내용마저도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문화적 위계질서의 논리는 부르디외의 용어인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말, 고급/대중문화의 구분에 근거한 문화적 위계질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생산자인 많은 예술가가 고급/대중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기 위해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대중문화인 상업예술에 예술적으로 더욱 심오한 가치를 부여했다. 고급문화인 모던아트를 소수 기득권층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중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랐다. 수용자는 엘리트 계층의 예술적 취향이 고급예술만을 고집하는 배타적 편식성에서 다양한 장르를 받아들이는 수용적 잡식성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보급은 엘리트 계층만이 아닌 일반대중에게도 고급예술이 더욱 많이 노출되어 예술적 가치를 폭넓

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문화적 위계질서의 약화 및 종식은 사회의 중대한 민주적 변화를 반영하고 의미한다. 20세기 말 엘리트 계층과 일반대중 사이의 경계 설정, 구분 짓기 및 상호작용 제한은 시대에 뒤떨어진 무의미한 양상으로 전락했다. 경계 넘나들기를 가능하게 만든 민주 세력들은 현재 예술창작을 추진하는 새로운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경계 넘나들기는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는 위계질서에서만 아니라 예술가와 수용자들의 역할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다. 현재 문화 예술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명확한 구분 및 구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문화 예술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예술적 영감 및 비전을 표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대부분 소규모의 집단들에 한정되지만, 간혹 이들 사이에서 진정한 예술적 창의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디지털 미디어의 개발 및 확대보급은 예술작품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작품 가격을 낮추었으며 접근을 더 쉽게 만들었다. 그 결과 예술가라는 사회적 범주는 확장되었고 예술가의 정체성은 더욱 모호해졌다. 현재 예술적 창의성이라는 개념은 소수의 예술가 그룹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일반인들에게 확대 적용 되기에 이르렀다.

경계 넘나들기는 각 사회와 문화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와 문화권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세기에 형성된 문화적 위계질서는 단순히 고급문화/대중문화의 구분을 낳은 것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와 예술의 지배적 균형을 촉진했다. 문화의 상호작용 및 보급은 비대칭적이었으며 일방적이었다. 비서구권 사회의 전통문화와 토착문화는 서구의 문화 예술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포스트 식민주의 사상가들은 비서구권 사회 엘리트 계층의 정신과 예술적 심미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서구 사회에 대해 편향적인 생각을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편향적 선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이르러 상황은 많이 변화한다. 마누엘 카스텔이 지적한 대로, 세계화가 진행되던 초기에는 서구문화가 비서구권 사회에 더욱 깊숙이 침투했으나 이후 각 사회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가

치를 인정하고 주장했다. 다양한 문화권 사이의 상호교류는 예술적 창의성을 더욱 자극하고 고취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했다.

세계화와 민주화의 진행 및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20세기 말~21세기 초 문화 예술의 다양성 및 포용성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더욱 고취했다. 20세기 초 문화적 위계질서의 형성은 예술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데 기여했다. 예술은 일상생활에서 유리된 초월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예술가들은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행 및 디지털 미디어의 확대보급이 일어난 창의적인 시대에는 예술이 사회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예술은 더 이상 현실 세계에서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일부로 간주하였고 예술적 창의성은 소수의 엘리트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

I. Art and Society in Creative Age

Joon Han

Art has been with human society through most of its history. Ever since the human beings achieved productivity high enough to free some, although not all, from work, work of art has begun to be produced regularly. Arts have had many functions through the history. However, most of arts in the early days of history were created to praise and celebrate the super-natural beings and the powerful people. If we go to museum or historical sites, we can see many art works created to worship gods or honor political leaders. Therefore art works were admired by many people but more because they represent power and money rather than they have inherent worth.

Although works of art can be traced back to ancient paintings in caves, artists as a social identity have been recognized only many centuries later. In the early days, art works to celebrate gods and kings were produced by the artisans rather than artists. They were hired by rich or powerful people to produce art works mainly for the purpose of ostentation. These producers had very little autonomy in terms of what and how to produce art works. Rich and powerful patrons of art dominated taste for the arts and specified what kinds of art works they wanted and how they are supposed to be produced. Such asymmetry between patrons and producers reflected and contributed to the low status of art producers. They were under the control of guild system and could not enjoy freedom either artistically or socially. Autonomy and freedom were granted to art producers only after long time of waiting. It was literators that

first enjoyed freedom and autonomy. Then painters and sculptors followed suit and finally composers and musicians were recognized as free artists.

As artists enjoyed recognition and respect from others for their creative work, market for their work also expanded and their works came to be valued for their artistic value rather than ritualistic or symbolic value. Valuation of art became the collective project of artists organized as academy. With such changes, inequality and hierarchy within the artist community grow larger than between artists and other social groups. Although artists achieved honorific status and could claim respect for their works, such privilege and prestige were limited to and monopolized by small group of successful artists. Academic art emphasized and demanded institutional rules on aesthetic values and restricted free experimentation and individual imagination. Although external control of art has been eliminated, internal group control based on tradition constrained individual freedom and creativity.

The advent of modernist revolution has liberated artists from the academic and classical constraints. Artists began to look for artistic value within their selves rather than from tradition. Fresh and new experiments are encouraged rather than imitating traditional models and following the classical standard. Artistic genius based on creativity has been highly acclaimed and heavily pursued after the modernist revolution. "Art-for-art-sake" has become the motto

of artists and more and more aspiring artists tried to break free from the establishment living Bohemian lives. Although modernist revolution made disinterested pursuit of artistic value an ideal for artists, most of the modernist artists suffered economic poverty. Pierre Bourdieu aptly summarized the situation as "economic world reversed". He argued that while the avant-garde artists enjoyed respect for their work based on their cultural capital, they suffer for poverty due to the lack of economic capital.

Commercial art made its appearance at the time of modernist revolution. The rise of metropolis and formation of middle class made it possible for commercial art to make its appearanc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for entertaining urban mass rather than small group of elite. Market for commercial art expanded rapidly with development of mass-media. As Benjamin succinctly described, new commercial art was mechanically produced and reproduced. While mass audience received commercial art enthusiastically, elites criticized and looked down on commercial art. Elite's negative response to commercial art reflects their intent and attempt to defend status privilege and cultural hegemony. It was not the deep pocket of small group of elite but rather the mass market that supported and functioned as patron for commercial art.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itnessed the division of highbrow and lowbrow art and formation of cultural hierarchy in most of the Western societies. Hierarchy of highbrow and lowbrow art was imported and emulated by elites in Asian societies. As a consequence, cultural hierarchy became dominant globally by the middle of twentieth century. Global expansion of commercial trade and mass communication

made even contents of cultural hierarchy similar. The logic of cultural hierarchy can be explained by the interplay of cultural and economic capital following Bourdieu.

However the dominant cultural hierarchy based on division of highbrow and lowbrow art faced new challenge by the end of twentieth century, Challenge to cultural hierarchy came from both artists and audience. From the production side, increasing number of artists tried to cross boundaries between highbrow and lowbrow art. They wanted to either make lowbrow commercial art artistically more profound or make highbrow modern art less esoteric and accessible to broad audience. From the reception side, elite taste has changed from exclusive univore focused on highbrow art to more inclusive omnivore accommodating broad genres of art. With the expansion of digital media, non-elite mass audience became more exposed to highbrow arts and came to enjoy them. Weakening and demise of cultural hierarchy reflect and represent more profound democratic change in the society. Setting boundaries, making distinction, and restricting interaction between elite and mass became obsolete and meaningless by the late twentieth and early twenty-first century. Democratic forces that have made boundary-crossing possible now serve as new driving forces behind artistic creation.

Boundary is not only crossed in the hierarchy of high and low art but also between the roles of artists and audience. Clear distinction and division between producer and consumer of art and culture is now eroding. More and more people not content with the passive reception of art and culture actively look for ways to express their own artistic ideas and vi-

sion. Most of such efforts are limited to small circles but sometimes discovery of genuine artistic creativity takes place. The rise and diffusion of digital media made artistic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asier, cheaper and more accessible. As a consequence, the social category of artist expanded and identity became more ambiguous. Now the agency of artistic creativity is not limited to narrow group of artist but is diffused to broad people.

Boundary-crossing is not only limited within each society and culture but also taking place between societies and cultures. Establishment of cultural hierarchy in twentieth century meant not only hierarchy between high and low art but also dominance of western culture and arts. Cultural interaction and diffusion among societies were asymmetric and one-directional. Therefore traditional and indigenous culture and art of non-western societies were regarded as inferior to western culture and arts. Post-colonial thinkers criticized deep-rooted western bias in the mind and taste of elite group of non-western societies. Such bias may still remain but things have changed a lot in the twenty-first century. As Manuel Castells observed, progress of globalization initially made western culture more prevalent in non-western societies but eventually stimulated local people to recognize and claim their own cultural identity. Interaction of diverse cultures promotes and stimulates further artistic creativity leading to more cultural diversity.

Progress of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long with the rise of digital media has made culture and art in the late twentieth and early twenty-first century not only more inclusive and diverse but also more creative. Establishment of cultural hierarchy in early twentieth century has moved art away from society. Arts were regarded as transcendental and beyond everyday lives of people and artists were consecrated as divine being out of this world. As a consequence of above-mentioned development in creative age, arts have come to be closer to society. Arts are seen as not beyond but part of everyday lives and artistic creativity is not monopolized by consecrated few but diffused to broad range of people.

II. 예술; 자기존중의 회복을 위한 시민의 권리 Civil Engagement with the Arts for the Recovery of Self-Respect

곽 덕 주

콜롬비아대학교 교육철학 석·박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주 연구분야

교육철학, 시민교육, 심미교육

Duck-Joo Kwak

Ph.D. in Philosophy of Education,
Columbia University(Teachers College)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ests

Philosophy of Education, Civic Education,
Aesthetic Education

II. 예술; 자기존중의 회복을 위한 시민의 권리

곽덕주

1. 교육철학자로서 본 저자는 “오늘날 공교육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천착해왔다. 그러나 본 발표문에서는 이 질문을 좀 더 확장하여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일반시민에게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이 예술의 교육적 가치, 즉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있어서 예술의 교육적 가치를 다룬 것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예술의 정치적(political), 혹은 사회 전반에서 미치는 예술의 공적(public) 중요성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두고 싶은 점은 나의 관심이 국가의 ‘창조경제’에 예술이 기여한다든가, 창의적인 인적자원 개발 등 소위 공공선을 위해 예술을 어떻게 도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 저자의 관심은 다음의 질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술을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모든 구성원이 누리지 못한다면 각 구성원이 박탈당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공익(公益)으로 기능하는 예술의 본래 가치는 무엇인가?” 특히 나는 예술이 단순히 개인 삶의 문화적 풍요로움 이상의 훨씬 큰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의 예술활동 참여를 시민권 혹은 인간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예술 혹은 예술교육에 관한 공적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예술 혹은 예술교육에 대한 공적 자금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2. 전문기술가와 기업가들 중심의 세계화 환경에서 지식의 도구적 관점이 만연하고 점차 확고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의 교양교육 커리큘럼으로서 예술과 인문학은 공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1998; 2010)은 예술과 인문학은 향후 세계시민이 “비판적 사고” 및 “서사적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체 불가한 자원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예술과 인문학을 세계적 혹은 민주적 시민권과 연결시킨 누스바움의 전략은 현명해 보인다. 예술과 인문학은 민주적인 세계 시민권을 위해 비판적 사고 및 서사적 상상력을 배양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제적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인문학 교육은 ‘독립적 사고’를 가능케 하여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인간 정신 및 사고의 지배와 조작에 맞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2010, p.54). 한편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이야기와 도덕적 상상력을 함양하도록 돕는 예술교육은 도덕적 관점 및 인생 경험을 다른 타자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p.96).

3. 누스바움이 민주적인 세계시민을 위해 예술을 통한 서사적, 도덕적 상상력을 강조한 점은 극심한 글로벌 경쟁 및 정치/경제적 양극화 라는 현상을 비추어 볼 때 설득력 있다.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른 타자들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 가족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믿음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포부, 관심, 가치들을 공유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들의 승리와 패배는 우리의 승리와 패배가 비슷하고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통은 인간 간의 모든 구별과 구분을 가로지르는 세계 화폐이다. 상상력을 통해 타자의 고통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공감을 통해 그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존중하게 된다. 여기서 예술교육은 위에서 언급한 세계화 경향들에 맞서는 데 기여한다.

4. 그러나 본 저자는 누스바움이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위해 예술교육을 지지한 점이 두 가지 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다. 첫째, 누스바움의 관점을 받아들이자면, 우리는 고통 받는 사람들과 고통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라는 두 집단으로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소수 특권층은 불평등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시민들은 불평등뿐만 아니라 시민권 및 인권의 침해를 겪는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타개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universal)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근거로 공감의 논리는 너무 미약하게 들린다. 둘째, 누스바움의 견해는 한 집단이 고통을 당하는 다른 집단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때문에 보편적 예술교육의 지원 논거로는 지나치게 수동적이게 들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관점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승자 대 패자라는 거대한 경쟁구도 속에서 타자를 이기려는 욕구로 추동되며 우리는 끊임없이 타자나 제도에 의해 평가 받고 분류된다. 이 체제 속에는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경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도록 하는 위협이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드리워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예술적 경험 자체에서 정치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만약 그렇다면 예술참여는 구성원 모두가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목표가 된다) 살펴보기 위해 ‘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좀 더 해방적(libertating) 관점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5. 우선 미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관통하는 예술의 힘은 공공장소에서 예술작품과 만날 때 겪는 바로 그 과정 혹은 경험에서 연유한다는 지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예술작품을 찬찬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과정, 즉 작품을 면밀하게 해석하고 읽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 내면의 어떤 것을 창조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들에게도 가시적인 공통 공간에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을 보고 해석할 것을 요청 받을 때 우리는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적용하거나 작품의 메시지에 의해 압도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종의 (자기 내면의 혹은 사람들 간의) 대화에 참여하며 자신을 위험과 같은 것에 노출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해석이나 반응은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작품을 공유하고 있던 타자들에 의해 이상하다는 반응이나 침묵으로 대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 상황에서 전에는 결코 상상해볼 수 없었던 놀람이나 경이로움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술작품과의 조우는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서 경험하는 새로운 공간을 연다는 의미에서 창조(creation)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 경험이 갖는 정치적 면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제로 일어난 사례로 예를 들어 보자.

6.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오래 전 서울문화재단의 담당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공무원의 업무능력 개발을 위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그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끝나자마자 참가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신체 부자유자였던 참가자는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했다. 프로그램에서 그가 겪은 예술 경험은 그가 이제는 밖으로 뛰쳐나가 “나는 신체장애인이야!”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굉장하듯 깊었다고 한다. 프로그램 참여전 그는 자신의 장애가 수치 혹은 깊은 심리적 상처였으며 항상 열등함을 일깨워주는 고통의 원천이었다

고 한다. 그는 항상 장애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로부터 숨기는 데에 급급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그는 처음으로 “나는 신체장애인이야!”라고 밖에 나가 소리를 지르고 싶을 만큼 타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자신의 신체 결함에 스스로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단순히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용기를 갖게 된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고통스러운 사회적 규정만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깨달음, 즉 장애를 넘어서는 자아를 감지하며 자신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힘을 느끼며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기존중감을 회복(혹은 획득)한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미적체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한 참가자는 갑자기 자기 자신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 새로운 방식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7. 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가 느낀 갑작스러운 자유로움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그가 참여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서울문화재단의 프로그램 기획에 오랫동안 참여해 온 나는, 이러한 나의 선 지식과 이해에 기반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을 가설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는 예술과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즉 1) 예술작품을 하나의 구성된 세계로 간주하고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적극적으로 작품에 몰입하며 2) 해석의 행위를 통해 예술작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반응해 보고 3)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에너지, 생기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기는 그가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즉 단순히 수동적으로 구속되거나 외부의 사회적 눈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의식, 자신을 자유로운 행위 주체로서 보게 된 자각은 “나는 신체장애인이야!”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할 만큼 공적 영역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인간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참가자는 자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화한 편견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이다. 이 경험으로 인해 그가 자신과 맺는 관계의 방식은 변화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법, 즉 자기 존중의 힘을 얻게 된 것이다.

8. 폴 W. 칸(2014, pp. 118-119)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믿음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나 우리 모두가 가진 내적 에너지로서의 창의성(creativity)에 대한 신비로움의 공유(shared mystery)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 의식(self-authorship)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요구이며, 스스로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타인의 작품을 해석하는 등의 예술 경험이 이러한 주인 의식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교환가치와 능력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을 과학기술과 시장 체제에 종속시키려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타자 인정의 욕구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예술작품의 해석을 통해 발휘되는 창의성은 현 체제 속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감의 행위라기보다는 저항의 행위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적 에너지로서의 창의성은 우리의 감각과 몸을 단순히 고통의 원천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비와 경이의 원천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우리 각자의 창의성은 내면의 감정과 신체적 현존(bodily existence)을 끊임없이 경험함으로써 인간성(humanness)을 재발견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intra-personal relation) 즉, 자기 존중 혹은 존엄의 회복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타자에

게서도 내 안의 것과 같은 내적 에너지가 있음을 알아채게 하고 또 인정하게 하여, 결국 타인을 존중하게 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인권)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나 자신의 주체성, 주인 의식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체성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인정의 주체성의 개발은 소설, 그림 등 우리 세계 속에 있는 공통의 사물로서 예술작품을 매개(mediation)로 할 때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다.

9. 예술은 어떻게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예술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하여 개별적 자아로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존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행위는 그 작품에 대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과의 지각적, 정서적, 인지적 조우를 통해 상상력으로 가상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작품과 만나는 것은 작품이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우리가 작품에 말을 걸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조우 과정은 ‘개별적 인간’으로서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형시킬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창의적 에너지를 ‘목적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존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회복시킨다. 여기서 예술작품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행위로서의 해석을 위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그러나 예술작품은 또한 개인들 간의 창조 행위를 위한 매개체로도 기능한다. 예술작품의 감상 내용을 타인과 나눌 때, 우리는 타인들 앞에 개별적 자아로서의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이게 된다. 타인들 역시 동일한 예술작품에 대해 자신만의 경험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정치적 행위로 기술할 수 있을지 모른다. 동일한 예술작품에 대한 반응과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양한 차이들은 공공의 장에서 자유롭게 노출되며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별적 자아로서 자신만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며 인간의 다원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예술작품과의 조우는 (타인과 다른)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이 예술작품에서 단순히 해답을 찾거나 남들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술작품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할 공통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0. 한나 아렌트(1998, pp. 175-179)는 이러한 창의성을 다원성이라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적 ‘행위(action)’를 촉발하는 탄생성(natality)으로 특징지었다. 여기서 행위는 공동의 세계를 열고 타인들이 그 세계에 반응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작품은 해독되어야 하는 기호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를 매혹시킴으로써 해석의 행위를 촉발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특별한 종류의 매개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술작품의 매혹적인 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내놓는 해석은 이해되거나 무조건 수용되어야 할 ‘의미’라기보다는 발생해야 할 자기 자신과의 그리고 개인들 간의 사건적 경험이다. 모든 예술작품은 각자 내면의 혹은 사람들 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대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는가 아니라 여전히 흥미로운지 물어야 한다. 창조 행위로서의 해석은 자유로운 행위이다. 제약이 없다는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해석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이러한 행위를 “기적”(1989, p. 246)이라고 불렀다.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창의성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신비로움과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실존적 추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실존적 추구는 열려있고 공동체적이며 상호 가로지르며 소통하는 공적 공간 속에서 공동의 저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11. 본 논문은 존엄과 (정치적) 자유, (정치적) 자유와 (예술적) 창조성을 연결함으로써, 시민권 및 인권 향상을 문화 변화 및 사회진보와 연결하는 우리의 힘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술 체험이 사회를 직접 변화시키지는 않으며 예술 체험을 통해 우리의 정치적 믿음이나 실천이 변화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예술 체험에서 촉발된 자유롭고 적극적인 상상력은 자기 내부로부터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및 문화적 태도를 조성하는 데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바 이샤이 마겔릿(1996)이 말한 “품위 있는 사회”, 즉 그 누구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무시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한층 가까이 갈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 Arendt, Hannah (1998), 2nd ed.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ahn, Paul W. (2014), *On Humanities and Human Rights in The Humanities and Public Life*, ed. by Brooks, Peter & Hilary Jewett,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Margalit, A (2008), tran. by Naomi Goldblum, *The Decent Societ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Nussbaum, Martha. C. (1997).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Nussbaum, M. C. (2010).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II. Civil Engagement with the Arts for the Recovery of Self-Respect

Duck-Joo Kwak

1. As a philosopher of education, I have been exploring the question of “How can we justify teaching the arts for all students in the public school today?” But in today’s presentation, I will extend the question further by considering “How can we justify using public fund to provide the public with experiences with the arts?” The first question is concerned with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arts, i.e., their significance in the formation of students’ personal culture, whereas the latter is concerned with the political relevance of the arts or the public significance of the arts for society at large. What is to be noted here in my pursuit of the second question is that I am not interested in the instrumental justification of arts for the public good, such as their alleged contribution to the so-called creative economy of the nation, or development of creative human resources and so on. My main concern is rather derived from such questions as “Why should the arts be made available for all of us in society, not just for a privileged few?” “What exactly would each of us be deprived of if this is not the case?” or “What would be the intrinsic values of the arts that make the arts a public good to the extent that everyone deserves to engage in and enjoy them?” I am particularly interested in whether we can claim that engagement in the arts as a kind of a civil or human right, since its benefit is far more than just the cultural enrichment of our personal lives. I think this is a publicly critical question since it can provide us a good rationale to demand public spending for the support of arts and arts education for every citizen, as well as a clear direction in

public policy-making on arts and arts education.

2. In fact, the arts and humanities as part of university curriculum for liberal education has been under enormous pressure to show their public utility in this global world of technocrats and entrepreneurs, where the instrumental view of knowledge is becoming widespread and firmly entrenched. In response to this pressure, a well-known American philosopher Martha Nussbaum (1998; 2010) defends the arts and humanities as irreplaceable resources in fostering future global citizens to nurture “critical thinking” and “narrative imagination.” I think her association of the arts and humanities with global or democratic citizenship is a clever move since it shows how the arts and humanities can be useful in cultivating those abilities for democratic and global citizenship, which are required to make economic innovation for global competition sustainable. Humanities education, which cultivates critical thinking in youngsters, equips them with ‘independence of thought’ to fight against the massive manipulation of our minds, increasingly what running the world is all about today (2010, p. 54). On the other hand, arts education, which cultivates narrative and moral imagination in young learners, enables them to have ‘sympathy’ for others with different moral outlooks and life-experiences (p. 96), who are living in our pluralistic liberal societies.

3. Nussbaum’s emphasis on narrative and moral imagination through the arts for democratic and

global citizenship may sound plausible, especially given the prevalent neo-liberal tendencies of fierce global competition and the increasing economic and political polarization we are now facing. Reading novels, watching films and listening to music are likely to create our sympathetic connections to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ourselves. We see people who are not members of our families or communities, and who do not share our political, ethnic or religious beliefs, but we learn that we share the same ambitions, concerns, and values. They too have children, parents, and friends, and struggle with issues of power and subordination. Their triumphs and defeats are like our own and their pain is like our own. Pain is a universal currency that cuts across all other sources of division. Confronting the others' pain in our imaginations, we learn that all people deserve our sympathy, and out of that sympathy comes our respect for their human and civil rights. Here arts education seems to play the role of counteracting the global tendencies described above.

4. However, I still find unsatisfactory in two ways Nussbaum's defense of arts education in order to elicit sympathy with others' pain. First, it is too weak to support the universal education of the arts since it tends to divide us into two groups: those who have pain and the others who don't have or have less pain, leaving intact the situation where a privileged few benefit from the gross inequities that perpetuate the conditions that lead to violation of civil or human rights. Second, it seems to be too passive an argument to support universal arts education, since it leads in the direction of demanding one group to sacrifice for the other group in pain. We need a perspective that can benefit everyone, especially when the world is driven by the desire to defeat others in

a massive game of winner versus loser; this driving mantra leads to the ironic fact that both parties are bound to suffer constantly from fear of humiliation and the threat of self-worthlessness by this ever-evaluating and classifying system of society. Thus, I would like to explore here a more liberating aspect of the relation between the aesthetic and the political to see if there is anything politically significant about the nature of our experiences with the arts, which makes engagement with the arts a worthy goal for all of us.

5. I want to start with an idea that the power of the arts that intersects between the aesthetic and the political may derive from the very process or experience we go through in encountering a work of art in a public space. This process of encountering a work of art in a slow, conscious, and attentive manner, namely by reading or interpreting it closely, may be characterized as a political act since it is a process through which we can create something, something of ourselves, in the common space where it is visible to one's own eyes as well as to others'. Asked to encounter and interpret a work of art, we do not just apply our knowledge of it or allow the work to dominate us with its own message. We rather engage in a kind of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conversation, exposing ourselves to a type of risk, namely, being rejected or responded to with silence by others who share the work with us in a common space. A wonder, something that has been never imaginable before, can suddenly emerge from this kind of conversational setting. Thus, we can say that our encounter with an art work is a process of creation in the sense of opening a new space in which we experience ourselves as free beings, while inviting others to join for a response. Let me give you an

example from a real-life story to further articulate this political aspect of our experience of the arts.

6. This is a story I heard a while ago from a staff member in the Seoul Cultural Foundation, who organized an arts-centered program for civil servants as a form of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Among the participants there was a person with a physical handicap. Right after the program ended he personally approached her and said how much he appreciated the experiences. According to the staff member, he confessed that his experience with the arts through the program was so great that he would like to go out and shout, "I am a person with a handicap!" Throughout his entire life, he continued to say, his physical handicap was merely a shame or a deep psychological wound and a constant reminder of his inferiority, something he had always been desperate to hide from others as well as from himself. But now,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he would like to reveal it to others by shouting "I am a person with a physical handicap!" It seems that now he had gained a kind of courage to acknowledge his physical defect as part of himself without being really hurt; now he has probably discovered a new way of seeing himself as someone who cannot be fully defined by such a painful social label as that of 'handicapped' person. He has now recovered (or gained) some sense of confidence in himself or a sense of dignity as a person from within. He said, according to the staff member, "I have never felt this way about myself. I feel I have just been newly born!" This indicates that he seemed suddenly to become interested in himself and wonder about a new possibility for his existence as a human being.

7. What exactly happened to him? How did it happen? And from where did the sudden sense of freedom on his part come? I did not ask the staff member about the details of the arts education program he attended. But I had some understanding of it since I had known the programs by the Seoul Cultural Foundation for a long time. This familiarity allows me to give a hypothetical account of what happened to him as follows. He must have been encouraged to have an encounter with the arts, that is, 1) to actively engage in an art work by looking at it as a constructed world, 2) to give his personal response to it with an act of interpretation, and 3) to be led to experience a new energy coming from himself while doing it. This energy must have empowered him to see himself in a new way, i.e., as a person who is capable of defining oneself, not just passively constrained and defined by the external social terms. I think this self-awareness, being aware of oneself as a free agent, is exactly what led him to have the courage to make a claim to his being worth being visible and heard in the public realm by shouting "I am a person with a physical handicap!" What is to be noted here is that he is not liberated from a social prejudice against himself but from the prejudice he himself internalized against himself; his self-relation has changed. Now he has established a new relation with himself, which gives him a sense of dignity and self-respect.

8. According to Paul W. Kahn (2014, pp. 118-119), our belief in human dignity needs to be based not on sympathy for the suffering of others but on the shared mystery of human creativity. He considers the meaning of self-authorship for one's life as a claim to the dignity of individuals, and our arts experience, both

from making one's own work and from interpreting others' works, can give us a chance to experience this self-authorship. Against the current system of society which molds us into the service of technology and the market based on the exchange-value and efficiency of our ability, and thereby constantly makes our existence trivial and insecure, it would be better if our creativity with arts, which is exerted in the act of interpretation, is depicted as an act of defiance, rather than an act of sympathy for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the system. Then this creativity can be described as a power that enables us to experience our own bodies, not just as the source of pain but as the source of mystery or wonder about ourselves. This would lead us to recover our humanness by making ourselves stay in touch with our inner feelings and bodily existence, which establishes a new relation to ourselves. What is politically so important about this new intra-personal relation, that is, the recovery of self-respect or dignity, is that it is likely to lead us to recognize the same creative power in others, so as to emerge as the basis of our respect for others. This means that our civil (and human) right can be properly grounded in our society through our understanding of other subjectivities as well as one's own subjectivity, and that this can be better done by the mediation of artworks, such as novels and paintings, as common objects around us.

9. How can the arts play this role? How exactly can the arts mediate us as individuals, as well as members of a community, for the recovery of our self-respect? As I described earlier, our act of interpretation of an artwork at hand is not about knowing about the artwork but about constituting a fictive world imaginatively by encountering it perceptually, affectively and cognitively. So, to encounter it we must make the

works speak to us and we can do so only by speaking to the works. This process of encountering has a transformative power upon the way we relate to ourselves as individuals; it leads us to witness our creative energy within ourselves and helps us recover our self-respect. An artwork here is seen as a medium for our intra-personal act of interpretation. However, it is also a medium for our interpersonal act of creation. If we are asked to speak out and share the way we experience an artwork, it opens a common space where we as individuals are present to others, revealing who we are. This act can be described as a political action since it triggers others to act on it with their own experience of the same artwork. In other words, our action creates a public realm in which our differences in interpreting the same work are freely exposed and interacted upon in our presence, which allow each of us to identify our own uniqueness as a person and acknowledge others' differences from us at the same time as the human condition of plurality. Thus, we may say that putting artworks in a public space is to initiate an act of creation, since it invites people to respond with something new to say about themselves. They cannot look up the answer and simply repeat what others say. For there is nothing in the artwork to be discovered; rather a common world around it is to be made.

10. Hannah Arendt (1998, pp. 175-179) characterizes this creativity as the natality of human 'action' in the human condition of plurality. Here the action means "to begin" something in the public realm by opening up the common world which invites others to respond to and participate in it. Thus we may have to add that a work of art is a special kind of medium that is waiting to turn into an event, rather than a set of signs to be decoded, by triggering our

action of interpretation with its seductive power; and our interpretation as a response to the power is an eventful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experience, rather than a meaning to be figured out and carried away. Every artwork can create the possibility for endless conversation within and among ourselves. We do not ask whether the conversation is making progress but whether it is still interesting. But interpretation as an act of creating is a free act, not in the sense of without constraints, but free in the sense of without causal explanation; it cannot be scientifically explainable and predictable. Thus, Arendt calls the action 'a miracle' (1989, p. 246); this experience of free creativity goes to the heart of who we are, while remaining a mystery. In this sense, we can even say that this act of interpreting a work of art is an existential quest for who we are, both personally and collectively, as co-authors in the quest, in an open, communal, and intersecting space.

11. My attempt to link dignity and (political) freedom and (political) freedom and (artistic) creativity aims to recover our power of linking civil and human rights to cultural change and social progress. How-

ever, our experience with arts is not likely to directly change our society. It is not likely to change our political beliefs and practices, either. But the free and active imagination within the arts can prompt people to recover their self-respect from within. I believe it will be a gradual, yet most-likely path forward to create a social mood and cultural ethos that takes for granted the fact that everyone deserves one another's respect. And this may hopefully get our society closer to what Avishai Margalit(1996) calls a "decent society," in which nobody is allowed to feel humiliated as less than a human being, but is equally respected as a human.

References

- Arendt, Hannah (1998), 2nd ed.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ahn, Paul W. (2014), *On Humanities and Human Rights in The Humanities and Public Life*, ed. by Brooks, Peter & Hilary Jewett,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Margalit, A (2008), tran. by Naomi Goldblum, *the Decent Societ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Nussbaum, Martha. C. (1997).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Nussbaum, M. C. (2010).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III. 평생교육과 치유로서의 예술: 서울시민예술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미혜

III. 평생교육과 치유로서의 예술 : 서울시민예술대학 사례 Art as Lifelong Learning and Healing Action -The Case of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임 미 혜

콜롬비아대학교 예술경영 석사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주 관심분야

예술교육, 예술사회학, 예술행정

Mihye Lim

MA in Arts Administration, TC, Columbia University
General Director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nterests

Arts Education, Sociology of Art, Arts Administration

문화예술교육 개발

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개발 및 기술의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 간의 경계도 불분명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문화적 혼동이 일어나리라 예측하는가 하면 아도르노를 비롯한 다른 이들은 대중문화와 문화 산업화가 무비판적인 시민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들 및 그룹의 문화적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문화 민주주의와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 민주주의는 상호인정 및 문화적 차이와 갈등에 대한 관용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다. 예술교육이 문화민주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이는 실제로 사회에서 문화 민주주의가 달성할 방안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한 많은 연구와 조사들에 따르면 예술교육의 특징 및 유형은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¹⁾에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췌하였다.

문화 예술의 참여는 투표와 자원활동 등의 시민 행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상정된 가정들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폭넓게 자극함으로써 참여형 시민들을 양산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민주적, 정치적, 사회적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근본적 요소들이다. 가령, 이러한 요소들이 교훈적 접근이 아니라 반성과 토론의 근거로 작용할 때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은 소수인종 그룹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고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문화예술교육은 개인들이 자신과 삶을 더욱 잘 이해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공감을 확대한다. 인간의 경험 및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반성능력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 문화와 예술이 (미술치료, 미술 및 디자인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사회통합 및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공동체 예술수업, 노인 및 치매 환자들을 위한 예술교육 등을 통해) 건강 및 웰빙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활발히 연구되었다.

• 예술교육은 인지 능력, 자신감, 동기, 문제 해결 및 소통 기술 등 학습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문화예술활동의 참여가 시민들의 소통 및 시민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 내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 칸트의 '미학적 판단',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랑시에르의 '미학의 정치학' 등 수많은 철학자가 예술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조명했다. 문화참여와 참여적 시민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학자가 예술과 인문학이 '공감적, 합리적 논의를 위한 중요한 공간'을 조성하며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구축하고 나아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세계를 조성(누스바움, 2007)'한다는 데 강한 확신을 보인다.

1) The AHRC Cultural Value Project, 2016 by Geoffrey Crossick & Patrycja Kaszynska

서울창의예술교육(Seoul Engagement with the Arts)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과 문화를 통해 서울을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취지 아래 서울시의 자금 지원으로 2004년 출범한 기관이다. 서울문화재단의 목표는 예술가 및 예술 지원, 예술의 가치를 공유,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 및 축제 기획, 예술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연습 및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교육적/치유적 접근을 통한 창의적 예술교육 장려를 통해 서울을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도시로 만든다는 데 있다.

예술의 핵심적 가치는 ‘시민참여’²⁾ 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토로 서울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서울창의예술교육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해오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기본 취지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예술의 회복 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세월호 사건 등) 이후 사회 평화를 구축하고 치유를 완성하는 데 있다. 문화 예술은 트라우마의 근원을 해결하고 화해를 도우며 사람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문화재단은 존 듀이와 맥신 그린의 미적 교육론에서 착안하여 세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술적 감성을 통해 대항할 수 있는 선행적 조건(transcendental condition)으로 미적 체험을 규정한다. 더욱 명확하게 보는 능력을 통해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된다. 창의적으로 살며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널리 깨어있음(wide-awakeness)”³⁾을 통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여정을 헤쳐나가게 될 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일상생활의 경험들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적 체험 이후 성장하게

되며 우리 존재와 우주가 좀 더 조화로운 방식으로 재배열된다는 칙센트미하이의 미적 체험에 관한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본부가 진행 중인 다섯 개의 핵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예술학교(Arts in School):** 연간 400개 학급 이상, 10,000명의 서울 학생들에게 서울문화재단이 양성한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s)를 통해 예술교육을 제공한다.
- **TA양성:** 서울문화재단은 뉴욕의 링컨센터 교육원과 연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TA 프로그램(AiE)을 통해 예술교육에 TA(예술가, 학교 교사)를 지원한다.
- **삶의 예술(Arts in Life)(공동체 및 평생학습):** 서울의 문화공간, 노인센터, 도서관 및 대학 캠퍼스와 관련한 공공 프로그램을 다룬다.
- **서울예술치유허브(Arts and Healing Hub):**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및 예술치료사, 정신분석가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예술치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이다.
- **SEA 네트워크(예술과 함께 하는 창의적 거버넌스):** 서울문화재단은 SEA 네트워크를 통해 예술과 교육, 예술과 치유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핵심 프로젝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새롭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여 취약계층이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수업이

2) 시민참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① 시민참여는 지식, 기술, 가치 및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동기의 결합을 통해 공동체 시민의 삶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및 비정치적 과정을 통해 공동체 삶의 질이 향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 책임과 고등교육(Civic Responsibility and Higher Education)』에서 발췌, 토마스 울리치 편찬, 오릭스 프레스, 2000)
 ②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혹은 civic participation)는 “일반시민이 관심 갖고 우려하는 문제들을 규명하고 처리하기 위한 개별적 행동들”을 가리킨다. (미국심리학회, 2008)
 3) ‘널리 깨어있음’은 맥신그린의 미학교육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consentization)’의 영향을 받았다. 불평등을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해 상상력을 이용할 것을 강조한다.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 **예술로 플러스(1~6학년 대상)**는 교사와 예술가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인 예술수업이 초등학교의 정규수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해당 수업은 서울문화재단 소속의 예술가교사들이 학급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형식이다. 현재 실행중인 아트 플러스 커리큘럼에는 국어, 사회, 수학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의 120개 학급이 예술로 플러스에 참여 중이다.
- **창의예술교육아카데미(AiE)**는 서울문화재단이 2007년 예술가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800명의 예술가교사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되었다. 예술가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과 교육을 통합하며 한국의 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서울시민예술대학**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을 통한 평생학습 및 치유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토대로 19세 이상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본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건들을 반영하여 예술을 접할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2016년 현재 50개 이상의 예술 및 치유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다.
- **창의적 이니셔티브(Creative Initiatives)**는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에서 예술 참여의 창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예술교육과 관련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3년에 한번)하며 신규 프로젝트 R&D, 미적 교육과 관련한 출판, 예술 및 힐링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서울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서울은 1997년에 들어서서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선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 평생교육의 규모 및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서울시민예술대학(Seoul Lifelong School of Arts, SLISA) 역시 공적 자금 지원을 통해 2015년 출범했다. 서울 시민들 대부분은 경기 침체 지속, 청년 실업률 증가, 심각한 대기오염, 고립과 불안 장애 심화로 인한 반사회적 범죄 증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일상에서 예술에 참여하는 기회가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자치구와 서울 내 예술 관련 대학교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서울시민예술대학은 일반 성인층이 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 프로젝트이다. 2016년 현재, 일 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시민이 50개 예술 및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민예술대학의 사례는 예술참여를 통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며 서울 시민이 어떻게 대안을 찾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연구 1. “시시시작”) 서울시민예술대학 기획 프로그램, 청년들의 ‘자기서사 책’ 만들기

참여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2030대

배경 및 기획 특징

- 청년 실업률의 장기화로 많은 문제가 양산되면서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오포세대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청년들이 사회적 타자가 된 현대사회에서 이들이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며 논의할 수 있는 사회-심리학적 환경을 조성하여 자기 삶의 주체가 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본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자기-서사 책 만들기’라는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학 상담과 바흐친의 대화주의의 방법론을 결합한 본 프로그램은 시를 짓고 자신만의 아트북을 제작하는 미적 체험을 제공하며 청년들은 이를 통해 자신과의

온전한 만남을 갖고 적극적으로 삶에 임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방향

- ÿ 책의 구성요소들에서 내 삶에 연결되는 문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ÿ 피드백과 세어임을 통해 타인의 서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서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확장하고 재구성한다.
- ÿ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미적 체험을 통해 놀이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 ÿ 작가가 되어 자신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자아정립의 힘을 키울 수 있다.

기대효과

- ÿ 문학과 시각예술의 만남과 확장
- ÿ 2030대 청년들의 주체적인 몰입과 소통의 계기 마련

프로그램 세부구성

- ÿ **1회기** '낯선 나와 만나기' 특강 및 그림자에 관한 자기 소개시 쓰기 (시인 특강)
회기목표: 시인과의 만남과 시 쓰기를 통해 문학적 방법으로 친밀감을 형성한다.
- ÿ **2회기** '마음의 문을 여는 법 I' 특강 및 내 마음 풀라주 (시인 특강)
회기목표: 시인의 언어를 빌려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
- ÿ **3회기** '마음의 문을 여는 법 II' 특강, '내 마음의 집 들어가 보기' 글쓰기 (시인 특강)
회기목표: 오감을 활용해 자신의 새로운 언어와 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
- ÿ **4회기** '마음의 집 들어가 보기' 글 배치 풀라주 및 낭송과 낭독 (북디자이너 워크샵)
회기목표: 내면의 글을 책 공간에 배치하고, 공간 밖에서 낭송하며 나를 드러내 본다.

- ÿ **5회기**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특강 및 패러디시 짓기, 레터링 (시인, 북디자이너 특강)
회기목표: 삶의 의미 있는 키워드를 선별해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ÿ **6회기** '자화상 풀라주' 및 '내 이름 레터링' (북디자이너 워크샵)
회기목표: 나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볼 수 있다.
- ÿ **7회기** '페이지 베리에이션' 및 '마음무늬, 마블링' (북디자이너 워크샵)
회기목표: 나를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대화를 통해 책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다.
- ÿ **8회기** '매듭과 시작' 및 '내 책의 한 페이지' 책갈피 만들기 (북디자이너 워크샵)
회기목표: 이야기의 매듭을 지으며 주체적으로 나의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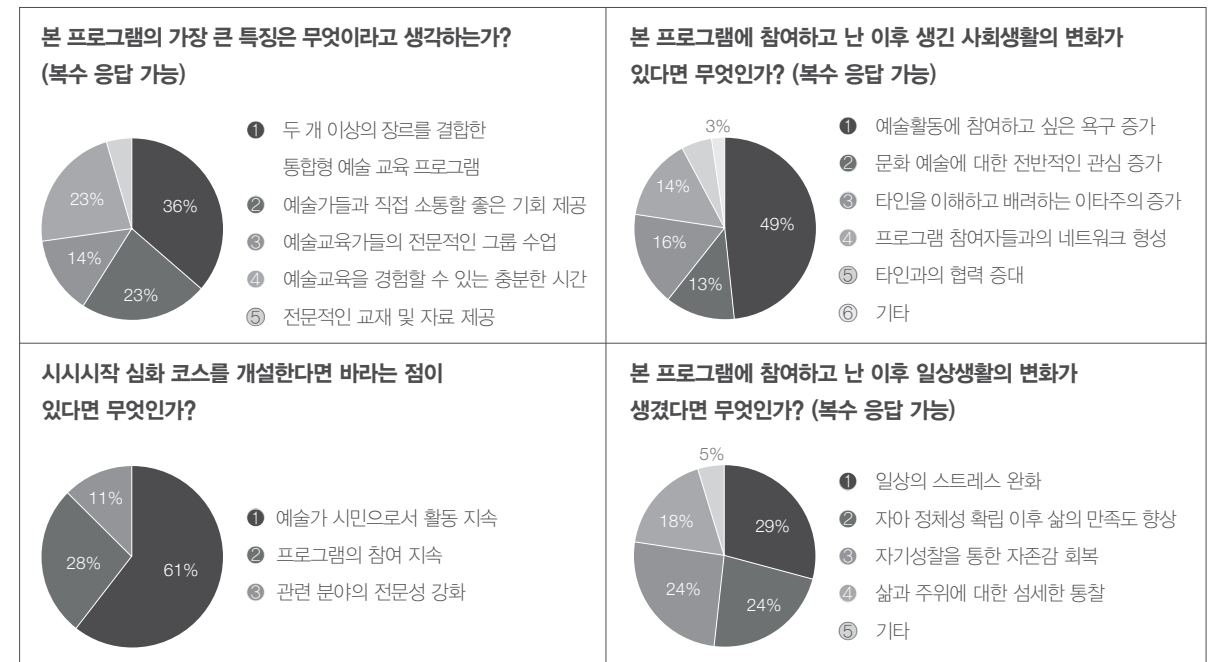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예술대학 프로그램의 하나로 문학과 시각 예술을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예술가들이 주가 되는 예술활동의 영역을 시민의 차원으로 확장해나가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대적 고민과 그 속의 자기성찰을 담아낸 젊은 시인들의 텍스트는 불안과 상실, 소외감을 겪고 있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공감과 사유를 이끄는 문화창작 활동의 통로를 열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나의 세계를 흔드는 '언어 풀라주', '푼크툼 탐색'을 하며 색다른 글쓰기의 방식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쓴 글을 북디자이너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엮는 과정은 단어와 소리를 시각적인 공간으로 확장하고 나와 의 거리 두기를 통해 통찰의 지점에 다다르게 했다. 나의 이미지를 낯설게 경험하는 '자화상 풀라주'와 '마블링', 그림과 글자 사이를 오가는 경험을 통해 문학을 시각화하는 '레터링'과 활자의 종류와 크기, 여백에 변주를 주며 다양한 버

전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시와 단어 배치 베리에이션' 등은 나를 새롭게 느끼는 발상을 촉진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청년들의 해소하지 못한 아픔을 놀이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전환점이 되었다. 공동의 놀이에 참여하며 자신을 탐색해나가는 과정은 나의 이슈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때로 각자의 활동에 몰입하며 자기와 만나는 사색의 시간에 집중한다. 자신과 만나는 몰입의 경험은 참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이 작가가 되어 한 권의 책을 '낭독'

하고 '전시'하는 것은 본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타인과 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30대 청년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전망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이야기의 한 부분을 매듭짓는 경험과 몸소 체험한(예술의) 즐거움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 향후 '시시시작'은 책의 소리와 공간을 구현하는 음악, 낭독, 영상,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결합하여 삶을 다채롭게 바라보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시민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시시시작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시시시작은 '시(詩)', '시(視, 보다)', '시(始, 시작하다)', '작(作, 만들다)'을 결합한 프로그램명이다.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시민예술대학팀은 서울상당 대학원대학교 문학상담 진은영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기획, 연구, 감독한 진은영 교수는 한국의 문학상담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시인이자 철학자이기도 하다. 2015년 참가자들로부터 열띤 반응을 얻은 후, 2016년 9월 제2차 '시시시작'을 준비 중이다. 일주일에 한 번, 총 8회 (총 25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여가능인원은 30명이다.

사례 2 : “예술, 마음, 치유” - 서울예술치유허브 예술치유 확산 콘텐츠 개발 시범사업(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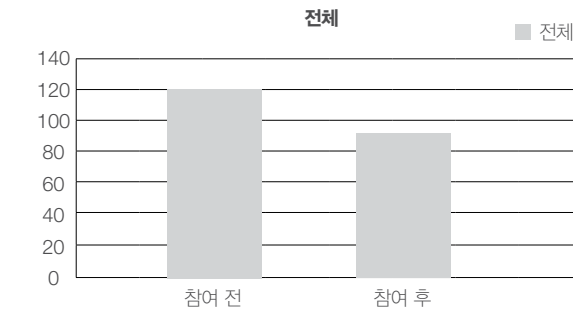
“예술, 마음, 치유” 시범사업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철도기관사, 콜센터 상담원, 독거노인 등 직업과 계층 특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특정집단 및 특수직군을 대상으로 예술치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통해 사회적 요구와 책임을 마주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려는 것이기도 하다.

2015년에 진행된 철도기관사 290명을 대상으로 한 음악과 무용 통합치유프로그램의 참가자들에 대한 설문결과 는 다음과 같다. 설문은 Lorr, McNair and Droppleman (1971, 1992)가 개발한 기분상태 측정도구POMS(Profiles of Mood Stat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치유효과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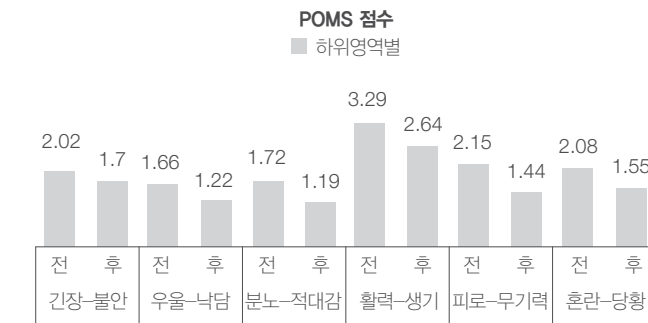
(1) 기분상태 측정도구(POMS) 전체 평균 점수 결과

항목	인원	참여 전	참여 후
		평균	평균
전체	242	119.64	89.82



(2) 기분상태 측정도구(POMS) 6개 하위영역별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결과

항목	인원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차
		평균	평균	
긴장-불안	242	2.02	1.70	0.32
우울-낙담		1.66	1.22	0.44
분노-적대감		1.72	1.19	0.53
활력-생기		3.29	2.64	0.65
피로-무기력		2.15	1.44	0.71
혼란-당황		2.08	1.55	0.53



결론

퍼트남은 “예술은 관습적인 사회적 장벽을 초월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고 말했으며 “사회적 자본은 종종 순수한 예술적 의도를 가진 문화 활동의 가치 있는 부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맥신 그리니가 말한 “나는 아직은 내가 아닌 나다(I am what I am not yet.)”라는 유명한 문장은 적극적으로 예술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상상력을 열어볼 수 있는 한 아직 채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참여와 친 사회적 행동은 예술의 창의적 참여를 통해 가장 잘 실천되고 실행될 수 있다. 세계의 이상을 실천하고 진정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예술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다루는 지에 따라 달려있다.

참고문헌

Geoffrey Crossick & Patrycja Kaszynska(2016), Understanding the value of arts and culture, The AHRC Cultural Value Project
 김이원(2016), 청년세대를 위한 자기서사책 만들기 : 대화주의적 문학상당 활동연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Mark J. Stern and Susan C. Seifert(2009), Civic Engagement and the Arts: Issues of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xine Greene(2001), Variations on a blue guitar,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and London
 Robert D. Putnam(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III. Art as Lifelong Learning and Healing Action - The Case of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Mihye Lim

Overview of the engagement with arts and culture

Today's world is being rapidly disintegrated and reorganized into a new order. Due to the continuous innovation of new media and technologies, globalization is accelerated and the line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are being blurred. Some are predicting that one side-effect of globalization will be cultural confusion. Others like Adorno are warning about mass culture and cultural industrialization will bear uncritical citizens. In fact, it seems rather brought about a new wave of cultural democracy and diversity based on respect for the cultural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the group. Because it acknowledges the values of mutual recognition and tolerance for cultural differences and conflicts, cultural democracy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politics as well as on the development of civic society. It is not any more a doubtless question that the cultural democracy can be the most effectively brought from the engagement with the arts, and it supports the cultural democracy becomes real in a society.

There are many examples of the nature and type of arts engagement known by the active researches and studies focused on how arts can create social values. Some of the meaningful notions are extracted from the recent UK's report, "Understanding the value of arts and culture¹⁾" as follows.

- Participation in arts and culture may produce engaged citizens, promoting not only civic behaviors such as voting and volunteering, but also helping articulate alternatives to current assumptions and fuel a broader political imagination. All are fundamental to the effectiveness of democratic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They can engage people in thinking about climate change when used not didactically but as a basis for reflection and debate.
- Arts and cultural engagement help minority groups to find a voice and express their identity.
- Arts and culture engagement also help shape reflective individuals, facilitating greater understanding of themselves and their lives, increasing empathy with respect to others, and an appreciation of the diversity of human experience and cultures.
- The contribution of arts and culture to improving health and wellbeing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with activities that include dedicated arts therapies, the use of art and design to produce better healthcare environments, community arts interventions to improve social inclusion and mental health, and the benefits of engagement for older people and also for those suffering with dementia.
- Arts in education has been shown to contribute in important ways to the factors that

underpin learning, such as cognitive abilities, confidence, motivation, problem-solving and communication skills.²⁾

As the report says, the claim that participation in art and culture is conducive to fostering civic dialogue and commitment has a long history³⁾ and been repeated through the human history. In fact, there has been numbers of philosophers who argued the importance and the role of arts such as Aristotle's 'zoon politikon', Kant's 'aesthetic judgement', Dewey's 'art as experience', and Ranciere's 'politics of aesthetics'. In spite of the difficulties to evid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s engagement and engaged citizenship, there has been a strong conviction among scholars that the arts and humanities generate 'vital spaces for sympathetic and reasoned debate, helping to build democracies that are able to overcome fear and suspicion and, ultimately, creating a world that is worth living in.'(Nussbaum, 2007)⁴⁾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SEA)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FAC), established in 2004 by the funding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dedicated to making Seoul a happier and better place through arts and culture. SFAC's vision is to transform Seoul into a creative

and artistic city by supporting artists and the arts, sharing the value of the arts, organizing various cultural projects and festivals, providing spaces of practice and collaboration for arts and creativity, and encouraging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via educational and healing approaches.

Recognizing that the core value of arts is made up of 'civic engagement⁵⁾', SFAC began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Project since 2010. The basic concept of the project is to facilitate 'aesthetic experience' in everyday life, and to help peace-building and healing after social crimes and incidents such as Sewol Ferry with the recovery power of arts for all the citizens. The arts and culture can help to deal with the sources of trauma, bring about reconciliation and help people to move on. Arising from the aesthetic education theory of John Dewey and Maxine Greene, aesthetic experience is defined by SFAC as the transcendent condition in which one can respond in his/her own way, with sensibility, having been sincerely and profoundly affected in a special way. It is enthusing us in those moments of understanding with the ability to see the world and ourselves more clearly; through autonomous action living more creatively; to assist us on our unseen journey with a 'wide-awakeness⁶⁾', which will enable us to better decide what decisions we should make, as well as how we can discover and understand our

2) Ibid, p.7-8

3) Ibid, p.58

4) Ibid

5) The definition of civic engagement can be understood as follows;

1. Civic engagement means working to make a difference in the civic life of our communities and developing the combination of knowledge, skills, values and motivation to make that difference. It means promoting the quality of life in a community, through both political and non-political processes. (Excerpts from Civic Responsibility and Higher Education, edited by Thomas Ehrlich, published by Oryx Press, 2000)
2. Civic engagement (or civic participation) is "individual and collective actions designed to identify and address issues of public concern"(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1) Geoffrey Crossick & Patrycja Kaszynska, The AHRC Cultural Value Project, 2016

experiences on the daily stage of life. It is somehow similar to Csikszentmihalyi's notion about aesthetic experience, which involving the very real feeling we have after an aesthetic encounter that some kind of growth has taken place, that our being and the cosmos have been realigned in a more harmonious way.

SFAC's arts and education department works in five core program areas:

- **Arts in School**, through which 10,000 students participate in the arts in education annually with SFAC's Teaching Artists in over 400 classrooms in Seoul;
- **TA Nurturing**, through which SFAC provides TA candidates (artists, school teachers) in arts in education with its uniquely developed TA program of AiE, with alliance with Lincoln Center Education in NY;
- **Arts in Life (Community and Lifelong Learning)**, which includes public programs on cultural spaces, senior centers, libraries, and other university campuses in Seoul;
- **Arts and Healing Hub**, which is one of SFAC's artist residency spaces specially designed to support the healing art projects planned and operated in alliance with artists and arts therapists in various genres, and also with psychiatrists.
- **SEA Network (Creative Governance with the Arts)**, through which SFAC shares best practices in arts & education, arts & healing nationally, and builds international partner ships.

To support these core program areas, SFAC has launched a variety of new and important projects for bringing the arts to underserved populations and for making advancements in arts in education, helping SFAC to better serve citizens of Seoul and to develop strategies that can be share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representative projects include:

- **Arts Plus** (Grade 1-6), through which creative artistic lessons are developed for formal elementary education through a joint project involving teachers and teaching artists. The lessons are implemented by SFAC TAs in the classroom. Available Arts Plus curriculum are Korean, Social Science, and Maths. Over 120 classes are participating in Arts Plus annually in Seoul.
- **Academy for Arts in Education (AiE)**, through which SFAC has been fostering and nurturing Teaching Artists over 800 since 2007. TA integrates arts and education in diverse ways, and plays a leading role in aesthetic education in Korea.
- **Lifelong School of Arts**, which serves as lifelong learning and healing opportunity for adults with arts. Based on the current Seoul city's cultural policy, the extended chances are supported for all citizens over 19 years old as their differentiated interests and conditions. Over 50 arts and healing programs are available in 2016.
- **Creative Initiatives**, which aims to build creative governance for arts engagement with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It includes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in

education (triennial), new projects R&D, publications in regard of aesthetic education, arts & healing program contents, and the operation of Seoul Informational Resource Center for Arts & Education.

The city of Seoul has a relatively short history of life-long learning for citizens, only started from 1997. However, the outstanding growth in numbers and budgets of Seoul Lifelong Learning has been witnessed during the last three years. Seoul Lifelong School of Arts (SLSA) was also made possible to start in 2015 by public support. Most of citizens of Seoul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continuing economic recession, the rise of youth unemployment, serious air pollution, anti-social crimes resulted from the intensified alienation and anger disorder. Seoul City and SFAC have agreed that the chances to engage with the arts in everyday life can be a precautionary role as well as a possible solution of the current series of social problems. Thus the new project of 'Seoul Lifelong School of the Arts program' for all adult citizens were started with plans for building alliances with regional governments and art colleges (or universities) in Seoul. As of 2016, there are 50 programs through the year and over 1,000 adults are expected to participate in arts and healing programs. A concrete example of SLSA case will illustrate how arts engagement can make people's life change and allow them to find alternative in their city life as of today.

Case study 1. "Si Si Si Jak⁷⁾" - Making Self-Narrative Books for Young Generation as Seoul Lifelong School of Arts program (2015~)

> Target Participants : Age from 20s to 30s, make a living in Seoul

> Background and features of Planning⁸⁾

- As problems caused by youth unemployment seem to get more protracted, the young generation is frequently described as 'the generation who is subject to giving up whatever they want'. Since the youth have become social otherness, it is necessary to make a socio-psychological environment where discussions start from the youths' very internal perspectives, in order for them to become the main subject of their own lives.
- The program is to suggest an activity of 'making self-narrative books' as an alternative for solution to such young generations' problems. Thus, the youth can actively live their lives from the aesthetic experience of writing poems and making their own art books, by the combination of methodologies from literature counseling activities and Bakhtin's dialogic principle.

> Program Purpose

- To find the literacy sense of being connected to one's life

⁷⁾ "Si Si Si Jak" means 'poem (시-詩)', 'look (시-視)', 'begin (시-始)', 'make/produce (작-作)'. SFAC's SLSA team developed and accomplished this program in collaboration with Korean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under the planning research and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Jin, Eunyoung. Prof. Jin has been leading the major field of literature counseling in Korea. She is also a poet and a philosopher. Backed by the fervent response from the participants from 2015, the program is now making preparations for the second opening in September, 2016. It is consisted of 25 hours of 8 times (1 time per week), and 25 people are planned attending capacity.

⁸⁾ Kim, Yi-Won (2016), Making Self-Narrative Books for Young Generation: Research on Literary Counseling Based on Dialogic Principle,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p.97

⁶⁾ One of the core concepts of the aesthetic education theory of Maxine Greene, affected by Paulo Freire's 'conscientization'. It emphasizes the capacity of imagination to perceive and to eliminate social injustice.

- To expand and reconstruct one's narrative with others through feedback and sharing
- To get the joy of play through the aesthetic experience which express their inner feeling enough
- To be a writer and actively express emotions, in which the power of self-respect are encouraged

> Expected Results

- The integrated aesthetic experience of literature and visual arts
- Providing a chance to self-reflection and resilience for 20s and 30s

> Program Details: Activities and objectives by session

- **Session 1** A lecture The Encounter with a Strange Me, writing a poem of introducing one-self centered on one's shadows (lecture by poet)
Objective: Build intimacy in a literary manner through meeting with a poet and writing poetry
- **Session 2** A lecture How to Open the Door of the Heart (I), "Collage of My Heart" (lecture by poet)
Objective: Reveal one's heart by adopting the language of a poet
- **Session 3** A lecture How to Open the Door of the Heart (II), a writing session of "Entering the House of My Heart" (lecture by poet)
Objective: Discover one's new language and narrative by using the five senses
- **Session 4** Collage of writings of "Entering the House of My Heart" and recitation (workshop by book designer)
Objective: Arrange the writings of one's inner side in the space of a book and unveil oneself by reading them outside of the space

- **Session 5** A lecture A Dictionary Composed of Seven Words; writing a parody poem; and lettering (lectures by poet)
Objective: Express oneself in a new method by selecting meaningful keywords in one's life
- **Session 6** "A Self-portrait through Collage" and "Lettering of My Name" (workshop)
Objective: Look into where my heart is heading by reorganizing aspects of who I am
- **Session 7** "Page Variation" and "Patterns of the Heart, Marbling" (workshop)
Objective: Take delight in expressing oneself and restructure the book through conversation
- **Session 8** "Wrapping up and Beginning" and creating a bookmark of "One Page of My Book" (workshop)
Objective: Wrap up the stories and expand one's space of one's own vo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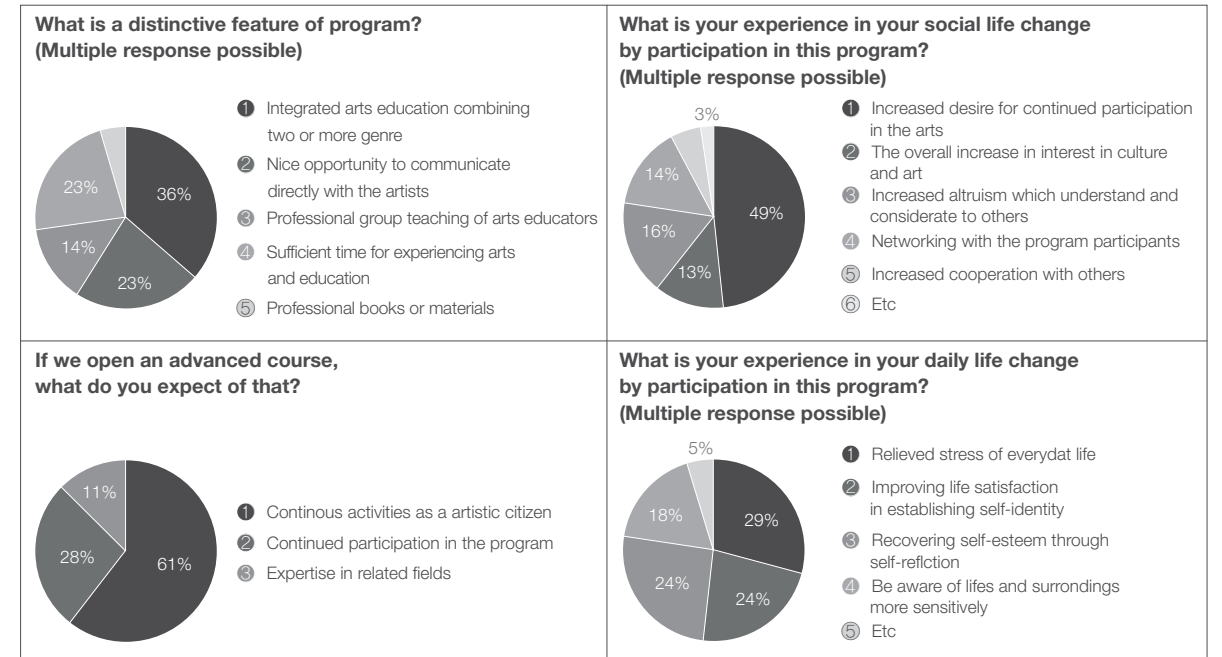
The program was a part of the Seoul Lifelong School of Arts in 2015. It was a significant attempt to expand the area of arts activities to civil dimension and maximize synergies by integrating the visual arts and literature. Texts of young poets which contain a troubled era and its introspection opened a passage of literary creation for the youth who were suffering anxiety, loss of empathy and alienation. In the process, the participants could embark to find a unique way of writing through 'language collages', 'punctum search' which shook their world. In addition, the book making process with participants' own articles let them reach to the point of insight through expanding words and sounds to visual space and keeping distance of themselves. 'Self-portrait collage' and 'marbling' made them see their unfamiliar image. Visualization of poems by moving letters and images, lettering and reconstructing the

story by variations of type, size and white space of print, 'the variation of poems and words', promoted the idea of a new feeling for themselves.

These activities provided a turning point in the young people to solve the unrelieved pain in a manner of play. Process of participation in joint play and exploration of themselves made their issues to see as a new possibility, not a problem to be solved. Participants sometimes involve themselves deeply in their activities and focused on a self-discovery with contemplation. Immersive meeting experience with them enabled true communication. Being a writer and 'reading', 'exhibition' showed that this process would ultimately be the parameters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society. To build self-esteem of the youth is also closely connected with the positive outlook of our society. The experience of joy and closing a part of stories can change young people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society. In addition, this program will be able to provide experience of looking up colorfully to life of citizen in conjunction with the art of various genres such as music, reading, video, play, implementing sound and space for the books.

Some of the survey results from the participants in 2015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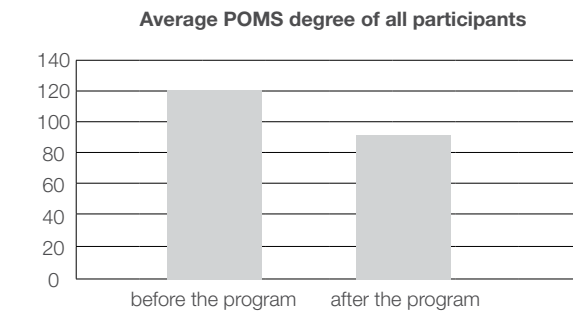
Case study 2. “Arts, Mind, Healing” – Healing Art Program of 2015

The purpose of “Arts, Mind, Healing’ pilot project is to develop programs for the specialized social class or occupational groups who suffer from their class or group nature, such as metro engineer, call center staff, solitary elders. It was also to generate the opportunity for the artist to meet social needs and responsibilities through their artistic work.

One of the survey results from the integrated arts healing program for the metro engineer(290 participants) in music and dance therapy in 2015 as follows, analyzing with the mood measurement tool of POMS(Profiles of mood States) developed by Lorr, McNair and Droppleman(1971, 1992).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gram had healing eff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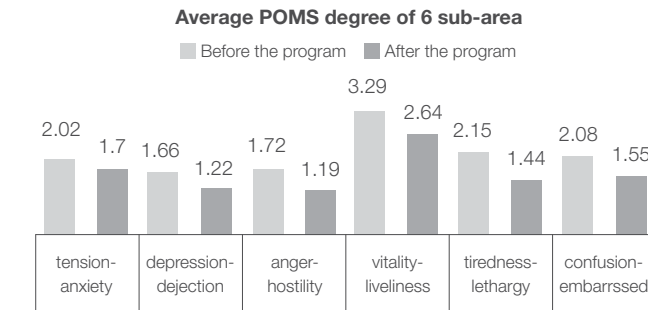
(1) Average POMS degree

Area	# of participants	Before the program	After the program
		Average	Average
Total	242	119.64	89.82



(2) Average POMS degree of 6 sub-area

Sub-area	# of participants	Before the program (A)	After the program (B)	Gap (A-B)
		Average	Average	Average
tension-anxiety	242	2.02	1.70	0.32
depression-dejection		1.66	1.22	0.44
anger-hostility		1.72	1.19	0.53
vitality-liveliness		3.29	2.64	0.65
tiredness-lethargy		2.15	1.44	0.71
confusion-embarrassed		2.08	1.55	0.53



Conclusion

Putnam says, “Art is especially useful in transcending conventional social barriers”, while also stressing that “Social capital is often a valuable by-product of cultural activities whose main purpose is purely artistic.”⁹⁾ Maxine Greene’s favorite remark of “I am what I am not yet” suggests us to ponder the mean-

ing of active arts engagement. In other words, one still can have a chance in life as long as he/she is open to an imagination to explore his/her undiscovered possibilities. The praxis of civic engagement as well as the pro-social behavior can be practiced and produced best in real through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The ideal and real change of the world depends on how we matter and deal with the arts.

9) Geoffrey Crossick & Patrycja Kaszynska, The AHRC Cultural Value Project, 2016, p 59

References

Geoffrey Crossick & Patrycja Kaszynska(2016), Understanding the value of arts and culture, The AHRC Cultural Value Project
 Kim, Yi-Won(2016), Making Self-Narrative Books for Young Generation: Research on Literary Counseling Based on Dialogic Principle,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Mark J. Stern and Susan C. Seifert(2009), Civic Engagement and the Arts: Issues of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xine Greene(2001), Variations on a blue guitar,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and London
 Robert D. Putnam(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토론
DISCUSSIONS

1. 예술 평생교육의 문화적 영향
2. 서울의 예술교육지원 시스템을 위한 방향 및 과제

1. Perspective on Cultural Effects of Art Education
2. The Direction and Task for Supporting Arts Education of Seoul City

1.
예술 평생교육의
문화적 영향
Perspective on Cultural Effects of
Art Education

김혜인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예술교육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제교류팀장

주 연구분야

문화예술교육, 시각예술정책, 국제문화교류

Hyein Kim

Ph.D. in Art Educ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Team Manager of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Interests

Arts Education, Visual Arts Policy,
International Exchange for arts & culture

토론 1.

예술 평생교육의 문화적 영향

김혜인

예술을 학습하고 체험한 뒤 문화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모두 포함)을 논의하는 것은 예술체험 및 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하는 것과 같은 문맥이다. “사회정의를 위한 예술”, “미적 체험으로서의 예술교육” 혹은 “몰입 경험으로서의 예술학습체험” 등 지금까지 수 차례 논의되었던 주제들을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술교육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시각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문화 예술의 체험학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초점은 문화 예술의 접근성에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참여로 이동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예술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예술에 대한 접근성, 예술활동 참여, 예술의 실천은 오늘날 시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의식 변화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 환경조성이라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대개 이러한 정치적 논리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 건축 등 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과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리 못하는 지역 및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와 연결된다. 예술교육은 예술 관련 체험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친숙한 접근법이며, 대중이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이 제공하는 자유로움과 기쁨을 경험하고 이는 결국 의식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 그동안 예술교육에 대해 널리 통용되는 가정이 있다. 의식 변화는 예술의 사회문화적 확장(물론 긍정적인 확장을 말한다)⁵⁾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문화가 개인들, 공동체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중 어떠한 것이 문화적 환경이 조성된 뒤 예술을 체험하고 참여한 데서 연유한 것인지 조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문화와 예술, 교육적 실천, 사회적 역할 및 그에 따른 결과를 논의할 때마다 논의의 초점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개인, 그룹, 사회적 의식에 변화가 발생

했다는 데 좀 더 맞추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교육의 대상 및 방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혹은 관점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배제 혹은 무시한 것은 아닌지, 예술교육은 항상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전제를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꺼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예술정책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술의 도구적 혜택에 대한 편향된 시선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RAND 연구센터에서 200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필요로 인해 우리는 예술의 본래적 혜택보다 도구적 혜택에 편향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 이는 예술의 본래 혜택(사람들의 인식 및 태도 변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은 본래 혜택(개인적 혜택(강한 흥미, 기쁨), 개인 경쟁력 증가(공감 능력, 이해력 등), 일반시민을 위한 누적 혜택(사회적 연대 등)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혜택들은 지속적인 예술 체험을 통해 파급효과를 낳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검토해야 할 지점이다.

예술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것은 자기반성 능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일반시민의 관용 및 자아존중 향상을 촉진한다. 이런 점은 예술교육이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가운데 중요한 문화적 영향에 해당한다. 작지만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문화적 영향이 시민에게 누적되고 전달되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가 생겨날 수 있다. 예술교육이 제공하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을 배우고 추진할 것인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초점을 맞추는 통합적 관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⁵⁾ 에릭 부스가 『예술학습의 생태구조(Ecosystem of the Arts Learning)』에서 기술한 개념인 ‘확장’을 말한다. 에릭 부스는 예술학습의 생태구조에서 다음과 같이 6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스가 유형화한 6가지 방향은 예술감상, 예술형식 내의 기술 향상, 미적 역량 개발, 예술의 통합, 지역 예술과 확장이다. 부스에 따르면 예술감상은 예술 관련 활동과 학습의 역할을 담당하고, 기술 향상은 기술과 테크닉을 학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미적 역량 개발은 예술의 접근성을 가능케하고, 예술 통합은 학습을 장려하며 지역 예술은 삶의 질 향상을, 확장은 예술적 결과물의 사회적용을 맡고 있다.

Discussion 1.

Perspective on Cultural Effects of Art Education

Hyein Kim

Discussing about what cultural effect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people may result from leaning and experiencing art would be in the same context as discussing about the effects of art experience and education. I don't mean to review again “Art for Social Justice”, “Art Education as Aesthetic Experience” or “Art Learning Experience as Flow Experience”, which have been discussed numerous times so far. However, isn't it necessary to adjust the views on the influence and effects of art education? Sociocultural emphasis regarding experiencing and learning culture and art has shifted from the importance of ‘access to culture and art’ to the participation in programs and is now shifting to the praxis of art in our daily life. Even in these days, access to, participation in, and praxis of art is accepted as a right of citizens and such awareness has led to a political logic that justifi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basic environment to exercise this right. This logic has generally been associated with the preparation of cultural infrastructure, in other words,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and art facilities, and cultural welfare-oriented approach for the culturally disadvantaged regions and people. It has been presumed that art education has been used as a sort of familiar star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ack of experience, and through art education, people have been experiencing the joy and the sense of freedom

that ‘art’ provides, which has eventually resulted in changes to people's awareness in any way. And such changes to people's awareness have been regarded to have derived the sociocultural expansion of art⁵⁾ (of course positive expans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hether we have ever paid attention to what cultural effects on individuals, communities and entire society have resulted from the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that takes place after the environment is prepared. In other words, we need to look back on ourselves whether we are more focused on the changes in the individual, group and social awareness and attitude resulting from the above mentioned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or the economic effects derived from the cultural and art education whenever we discuss about the cultural, art and educational praxis and the social role and effects thereof, in addition to whether we have been intentionally excluding or neglecting the points that may affect adversely the subjects and methods of art education or difference in stance on or reluctance to sensitive or controversial social issues for which it is difficult to form a social consensus in order to ensure an implication that art education always delivers positive effects. Maybe this is attributable to bias towards the instrumental benefits of art from a passive perspective on art policies.

⁵⁾ It refers to the ‘expansion’ that Eric Booth used to describe the <Ecosystem of the Arts Learning>. When Eric Booth presented 6 directions in the ecosystem, he defined the types of art appreciation, technical improvement, aesthetic competence development, art integration, local art and expansion. He also explains that art appreciation performs the role of art-related activities and leaning, technical improvement performs the role of learning skills and techniques, aesthetic competence improvement takes the role of enabling access to art, art integration takes the role of encouraging leaning, local art performs the rol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expansion performs the role of social application of artistic results.

A research report published from RAND Research Center in 2004 points out that we have been biased to instrumental benefits rather than intrinsic benefits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needs, and the instrumental benefits (changes in people's awareness and attitude, socioeconomic effects, etc.) and the intrinsic benefits (private benefits (fascination and joy), growth in personal competence (sense of sympathy, understanding, etc.), cumulative benefits for the public (social solidarity, etc.)) needs to be interpreted as mutual relationships. This research also emphasizes that all of these benefits deliver more spillover effects through continual art experience, which is what we need to consider and examine in depth now.

We all know that the experience and learning of art improves the competence of self-examina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global relationships, which they are meant to do, and such competence improved will lead to the public effects of generosity and self-respect. Such public effects would be the significant cultural influence originating from art education, and such influence can be created in the process of change in which small and diverse positive and negative cultural effects are accumulated and deliberated, and in which people's will of praxis to resolve negative effects emerges.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the biggest value that art education provides is its function to evoke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perspective on with whom and how to proceed with, rather than the emphasis on what to learn and what to proceed with.

2.

서울의 예술교육지원 시스템을 위한 방향 및 과제

The Direction and Task for Supporting Arts Education of Seoul City

백 선 혜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주 연구분야

문화정책, 축제정책

Seonhae Baik

Ph.D. in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Senior Research Fellow of Seoul Institute

Interests

Art & Cultural Policy, Festival Policy

토론 2.

서울의 예술교육지원 시스템을 위한 방향 및 과제

백선희

2005년 문화 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서울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예술 교육 지원정책은 주로 학생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예술교육의 주요 프로젝트는 예술교육강사 지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올해 관련 예산만 100억 원 규모이다. 저소득층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도 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다.

그러나 시민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예술교육 정책 경향에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기존 예술교육이 예술을 통해 예술적 기능 혹은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기본적 기술(소통, 공감 등 다원적 사회에 살아갈 때 필요한 기술들) 함양이 중요한 주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다. 또한, 예술교육은 보편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들을 다룰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예술은 더는 일상생활에서 유리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하는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예술교육정책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 예술교육정책이 중앙정부의 예술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었다면 이제는 각 지역의 문화 예술의 생태계를 고려한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역순환 예술교육시스템” 구축은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해당 지역의 학교, 사회복지시설, 평생 교육시설, 문화 시설(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극장 등)을 연결한 통합형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교육시설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역 공동체, 지역 예술가들, 지역 활동단체 및 문화 예술 기관들이 함께 모여 교육 내용 및 교수 방법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 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은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어 단순히 배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교육의 선순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순환 예술교육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 혹은 동 단위)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관 및 자원을 파악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 관련 기관들(서울교육청, 교육구청, 평생교육원, 구청, 공동체 센터 및 마을 예술센터 등)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역마다 교육지원체제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역 정부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활동 주체들이 지역의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협력 체제는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Discussion 2.

The Direction and Task for Supporting Arts Education of Seoul City

Seonhae Baik

The arts education of Seoul has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the enactment of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Act in 2005. The supporting policy of arts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mainly for students and low-income citizens. Especially, the supporting policy of arts education is accomplished based on schools. The major project of arts education is a Support Project for Arts Instructors and more than 10 billion won has been input in this year only. For low-income citizens, opportunities to enjoy cultural events have been expanded.

The change in the trend on the arts education policy, however, has been sensed as the recognition of citizens' cultural right expands. It means, the existing arts education set goals to achieve artistic functions or educational goals by means of arts, but achieving basic skills- communication, sympathy, etc.- that are basic skills to live in the time of variety are regarded important recently. Thus, the arts education is not limited to realize students' creativity, but it becomes an issue for every citizen who lives their life. In addition, the arts education is asked to be rooted in the local values as well as the universal values. Art is not something aloof from everyday life, anymore.

This situation means that the paradigm of Seoul City's arts education policy should be changed. If the existing arts education policy focused on delivering the arts educa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effectively, now it should be evolved to the direction that considers the ecosystem of local culture

and arts. Building 'arts education system of local circulation type' is the condensed expression of it. It means the integrated education system that connects schools, social welfare facilities,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library, museum, art gallery, theater, etc.) within the area. It does not simply mean expanding education venues, but schools, local communities, local artists, local activity groups, and cultural art institutions share educational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or develop and teach together. In addition, students become subjects of other education by themselves and achieve virtuous circulation system by teaching other people rather than just learning.

To realize arts education system of local circulation type, figuring out institutions and resources that can be connected to arts education in the designated areas (districts or dong units) should be made beforehand. Especially, the network of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such as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District Office, community centers and village arts centres, is important. Establishing regional education supporting system for this network is also needed. An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s that operational subjects of local public resources can build the co-operational system.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co-operational system should be operated autonomously by local people in consideration of local situations.

2016 서울예술교육포럼

창조의 시대, 예술을 통한 시민 참여

: 서울시민예술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Civic Engagement with the Arts in the Creative Age

: The Case of Seoul

기획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총괄	서명구
기획/운영	이고은
운영지원	이재승
디자인	더블유프로젝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일	2016.07

이 책에 수록된 글의 저작권은 해당 저자와 서울문화재단에 있습니다.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4628)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8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2층

E. edu@sfac.or.kr

T. 02-758-2010

W. www.sfac.or.kr

F. www.facebook.com/artsedu

창조의 시대, 예술을 통한 시민 참여

: 서울시민예술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Civic Engagement with the Arts in the Creative Age

: The Case of Seoul

주최 Organized by



서울문화재단



후원 Supported from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